

# 명실상부한 국민종교로 거듭나자

## 나눔결사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5대 수행결사를 천명하던 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총무원들은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를 단체 관람했다. 아프리카 수단에 오지 마을 '톤즈'에서 구호활동에 헌신하다가 암에 걸려 생을 마감한 이태석 신부에 관한 이야기다. 계층과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감동유면 스토리로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다.

'울지마 톤즈'의 단체관람은 불교계도 자비와 나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취지에서 마련됐다. 나눔 결사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108배 △민생 지원활동(결식아동 지원) △나눔과 무소유 캠페인 등을 들 수 있다. 주무부서인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설날에 즈음해 총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교 본연의 사명인 보살행의 활성화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위상을 높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이 개인과 사회의 치유와 정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비움으로 행복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움으로

## 이웃과 사회 위한 108배 민생 지원...무소유 캠페인

행복찾기'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성대하게 선포식을 거행했다. 채움이 아닌 비움의 태도로 심신을 맑히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목적이다. 몸의 비움, 마음의 비움, 재물의 비움이라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진행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몸의 비움'은 매일 정기적으로 108배 수행을 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마음의 비움'은 자기를 제외한 주변과 이웃의 대상 108개를 정해 매일 그 대상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재물의 비움'은 감사와 기원의 마음이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매일 1만800원(1배 100원)을 기부하는 내용이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불교의 연기법을 담고 있다.

2009년부터 본격화된 자비나눔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총무원, 사회복지재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등이

주관하는 자비나눔 사업은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희망의 등 달기' 운동, 1배 100원 모금법회, '한 끼 나누기' 운동 등으로 나뉜다. '희망의 등 달기' 운동은 부처님 오신날 등(燈) 공양비 중 1000원을 이웃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음력 초하루인 오는 27일 오전 10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하는 '1배 100원 모금법회'는 말 그대로 불자들이 사찰에서 절을 할 때마다 100원씩 성금을 내는 작은 보시행이다.

'한 끼 나누기' 운동은 사찰에서 열리는 각종 연수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끼 밥값을 줄여 종무소에 설치된 쌀독(좁도리)에 넣는 방식이다. 연말까지 모인 쌀은 불우이웃에게 전달된다.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지금 이 순간 나누어 소유에 대한 집착과 자아에 대한 맹신을 털어야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자성과 쇄신을 바탕으로 조계종이 국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섭 기자 luel@bulgyo.com

## 평화결사

종단이 밝힌 5대 결사 가운데 평화결사는 불교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 담화문에서 밝힌 평화결사의 내용은 △종교간 평화 △남북한 평화 △세계평화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한국사회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불교가 담당할 책무임에 틀림없다.

제33대 집행부는 출범이후 줄곧 평화결사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해왔다. 총무원장 스님의 방북으로 남북 긴장 해소 노력을 했으며,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종단 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대북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강조했다. 남북 갈등해소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남북의 긴장 해소를 위한 "종단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로 풀이된다.

평화결사의 과제인 남북 평화를 위해 화쟁위원회와 불교사회연구소에서 '통일 정책과 대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종단 주요과제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제시한 것은 남북평화에 대한 종단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강국의 이해관계가 모여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남북한 평화와 지구촌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는 물론 지구촌이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종교간 갈등이다. 차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배타적인 태도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제적 분쟁까지 야기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간 갈등이다.

상생과 화합을 통한 종교간 평화를 이루는데 불교가 노력하겠다는 것이 평화결사의 원력 가운데 하나이다. 제33대 집행부는 그동안 종교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 1월26일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태석 삶을 살았던 고(故) 이태석 신부의 생애를 다룬 영화 '울지마 톤즈'의 총무원 상영은 그 같은 행보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천주교 신부님

## 종교간과 남북한 평화 모색 민추본 화쟁위서 대안 제시

께서 구현했다"면서 "이런 스님과 불자들이 나온다면 좋겠다고 판단해 함께 영화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교간 평화와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종단의 행보는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단이 2013년 한국에서 세계종교지도자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것도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의 단초를 제공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 지구촌 분쟁의 주요 요인인 종교간 갈등을 종식하는데 세계종교지도자들이 나서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종교차별 예방 및 대응활동도 종단차원에서 전개할 방침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신년기자담회에서 "우리 스스로의 변화와 의식 전환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면서 "그 길이 멀어야 할 곳은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 시대정신을 부여받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국불교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대정신을 언급한 것은 한국사회와 지구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 사회와 시대가 부각한 남북 갈등과 종교 갈등을 해소해 평화를 성취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향후 한국 불교의 평화 성취 노력이 기대된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 “자성과 쇄신결사 지지”

## 종책모임 화엄회·법화회 환영 논평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화엄회(회장 성직스님)와 법화회(회장 정념스님)는 지난 1월26일 공동 논평을 통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자성 쇄신 결사'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화엄회와 법화회는 논평에서 "우리 스스로의 허물에서 벗어나 깊이 자각하고 '민생 안정과 민족문화 수호의 길'을 천명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결단에 대중과 함께 적극 지지한다"면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실천적 논의 의지결집 당부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자성과 쇄신 결사 제안에 힘을 실어줬다.

두 종책모임은 이어 "자성과 쇄신 결사를 바탕으로 종교편향정책과 종교간 갈등 조정, 민족문화 훼손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 대응활동을 대중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이웃종교인 이해 위한 영화 관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총무원과 이웃종교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은 지난 1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삶을 헌신한 고(故)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를 관람했다. 신재호 기자

## 호성·정념스님-정련·정인스님 동국대 개방이사 후보자로 추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정련스님) 개방이사 추천을 위한 회의가 지난 1월27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2월7일 임기만료되는 헤림스님 후임으로 제16교구본사 교운사 주지 호성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 정념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또 오는 3월11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련스님 후임으로는 정련스님과 중앙승가대 교수 정인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개방이사는 2월 중에 법인 이사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는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스님, 조계종 총회의 원 일문스님과 종성스님을 비롯해 대학평의회 대표로 박명희 교수와 변승재 교장이 참석했으며, 초중고학교운영위원회 대표인 오택원 동대 사대부교 교장과 김용선 동대 사대부교 교장도 함께 했다.

어현경 기자 eonako@bulgyo.com

## 본·말사 주지인사

2011년 1월20, 27일 총무원의 결과



법화스님 서울 적조사



원택스님 광명사



승신스님 원주 자비사



적광스님 순창 민일사



취임 후 매일 한차례 이상 사회복지시설을 찾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올 해 첫 복지시설 탐방으로 지난 1월27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았다. 김형주 기자 coojoo@bulgyo.com

부처님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

# 동국대학교 백상원 신축 불사 완공

조계종단은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 인재양성을 위한 일환으로 중비생 제도를 도입하고 중립대학인 동국대학교를 통한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백상원은 낡은 시설과 열악한 환경 탓에 여법한 학문탐구를 받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한국불교 도제양성 역사의 현장이자 대학생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백상원을 신축하는 대공정의 뜻을 올려 2011년 3월 중순 완공 예정입니다.

그동안 종단과 석림동문회(동국대학교 출가공동체)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미래 한국불교의 가치를 세계만방에 떨칠 도제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세상을 비추는 힘 | 동국대학교 | 세상을 깨우는 이름 | UNIVERSITY

동국대학교 백상원 신축 조감도.